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간호 논문 분석(1981~2000)

김 정 희* · 윤 순 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지난 80년대 이래로 산업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어왔다. 산업화과정에 뒤따른 후유증으로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환경이 변화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Kim, 1999). 즉 90년대 후반 이래로 사업장에서의 경험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였다. 세계화, 무한경쟁,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한파 및 그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기업의 축소, 새로운 경영철학, 새로운 첨단 기술의 발달 등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진행되어온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불안정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건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1990; Lee, 1997; Kim, 2001).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중반 Selye의 일반적응징후군에 의한 psychosomatic 개념이 체계화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행되었다(Lee, 1989; Oh & Min, 1993).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로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생활사건 중심이었다(Lee, Ha, & Park, 1985; Lee 등, 1992a, 1992b; Lee,

1994; Paik & Hong, 1987). 산업보건의료분야에서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과로사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Oh & Min, 1993),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수는 매년 증가되는 경향이다.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검색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 혹은 업무, 직업성 스트레스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은 2000년 현재 566건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발표되고 있다(<http://www.nanet.go.kr>, 2002). 그러나 많은 수의 연구에 비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개념 및 대상자에 대한 반복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에 대한 분석은 간호사의 업무(혹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 분석을 시도한 Lee(199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는 유럽 EU국가들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발표되며, 개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의 조직적 혹은 개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크기 등이 분석되고 구체적인 스트레스관리에 이의 결과를 재적용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Kim, 2001; Murphy & Schoenborn, 1987; Cahill, 1995).

특정분야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평가는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지양하고 선행연구들을 정련시키며,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Lee, 1996). 따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발표된 연구들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Kim, 2001).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근로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므로써 현재까지의 근로자 스트레스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981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관련 문헌들 중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한다.
- 2) 이 연구들을 분석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 3)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간 국내에서 간호학자에 의해 발표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으로 하였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달 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 검색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건연구정보센터(RICH), 국회도서관의 문헌 검색자료 등을 통하여 논문제목 및 주요 개념에 스트레스 개념이 나타난 논문을 목록화 하였다. 연구자가 초록과 원문, 목록 등을 검토하여 그중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 하나만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118편이었다.

2. 자료분석방법

간호연구 논문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논문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도별 발표 논문의 수 : 5년 단위로 분류하였다.
- 2) 논문의 유형 및 발표 학술지 : 학위논문과 발표된

학술지별로 분류하였다.

- 3) 연구설계 : 질적 연구와 실험연구, 비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Q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질적, 양적 특성을 모두 지닌 연구이나 질적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비실험연구는 조사연구, 상관성연구, 비교연구, 도구개발(타당도 검증 연구 포함)연구, 모형구축, 논문분석 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 4) 연구대상자 : 간호사, 병원종사자, 교사, 생산직, 사무직, 여성 근로자, 생산직 및 사무직 구별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대상자를 생산직, 사무직, 여성, 근로자 등의 분류는 대상 논문들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 5) 논문 제목에 사용된 스트레스 용어 : 근로자의 '스트레스'라는 개념 하에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들을 스트레스, 스트레스원(요인), 스트레스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 6) 측정도구의 유형 :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만을 분석하였으며, 2편 이상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개념들을 분류하였고, 1편의 논문에서만 사용된 도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 7) 근로자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다룬 개념 분석 : 2편 이상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개념들을 분류하였으며, 1편의 논문에서만 사용된 개념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련 개념에 일반적 특성을 포함시켜 분석한 논문(Lee, 1996)도 있으나, 본 연구 대상의 대부분 논문들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서술적 통제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관련 개념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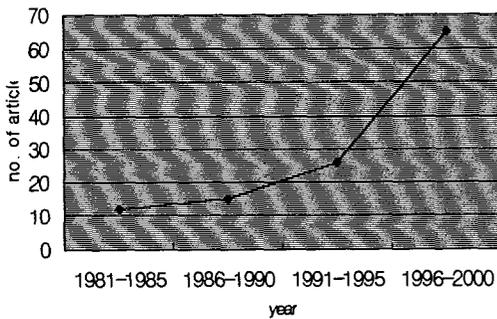
1. 연도별 발표 논문의 현황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논문은 총 118편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이 12(10.2%)편, 1980년대 후반은 15편(12.7%), 1990년대 전반은 26편(22.0%)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분석 대상 논문의 과반수 이상(65편, 55.1%)이 1996년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1). 이는 1980년대 이후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Lee 등(1992)

의 결과나,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논문을 분석한 Lee(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이었다.

<Table 1> no. of studies by year (N=118)

year	n(%)
1981-1985	12(10.2)
1986-1990	15(12.7)
1991-1995	26(22.0)
1996-2000	65(55.1)



<Figure 1> no. of studies by year

2. 논문의 유형 및 발표 학술지

논문의 유형 및 발표 학술지에 대한 분석에서, 분석 대상 논문의 과반수 이상이 학위논문(83편, 69.5%)이었으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36편(30.5%)이었다.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하나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36편 중,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13편(3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한국산업간호학회지가 5편(13.9%), 성인간호학회지가

3편(8.3%)순이었으며, 지역사회간호학회지와 간호행정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대한간호 등이 각 2편(5.6%)씩 이었고, 대학 논문집 등 기타가 7편(19.5%)이었다. 이는 대학논문집과 중양의학 및 최신의학 등에 게재된 논문이 가장 많고, 대한간호학회지에 발표된 경우가 10.9%에 불과하며, 그 분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없는 것으로 보고한 Lee(199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점은 Lee(1996) 연구의 경우, 대학논문집에 발표된 논문들이 많이 포함된 반면에 본 연구는 대학논문집에 발표된 논문들 중 적은 수만 포함되었고, 또한 대한간호학회의 분과학회지인 성인간호학회지 및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89년, 산업간호학회지 91년, 간호행정학회지가 95년에 창간, 발행된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1995년 이전에는 간호학자들이 전문간호학술지가 아닌 '중양의학'이나 '최신의학' 등에 많은 게재를 하였으나, 분과학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5년 이후에는 전문간호학술지에 게재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각 분과학회에서 분과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은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 설계

연구설계 분류는 질적 연구와 실험연구, 비실험연구로 분류하였으며, Q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질적, 양적 특성을 모두 지닌 연구이지만, 질적 연구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비실험연구가 109편(92.4%)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질적 연구는 2편(1.7%), 실험연구는 7편(5.9%)이었다. 비실험연구 중 상관성 연구가 63편으로 이는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과반수 이상(53.4%)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조사연구가 24편(20.3%), 비교연구가 13편

<Table 2> types of studies and names of journals (N=118)

types	classification	n(%)	
thesis for a degree	master	77(65.3)	82(69.5)
	doctoral	5(4.2)	
journal	J Korean Acad Nurs	13(11.0)	36(30.5)
	Korean J Occupational Health Nursing	5(4.2)	
	The J Korean Community Nursing	2(1.7)	
	JKANA	2(1.7)	
	J Korean Acad Psychiatr Mental Health Nurs	2(1.7)	
	J Korean Acad Adult Nurs	3(2.5)	
	The Korean Nurse	2(1.7)	
	other(s)	7(5.9)	

(4.2%), 모형구축 연구가 5편(4.2%), 도구개발연구가 3편(2.5%) 순이었다(표 3).

<Table 3> type of a design (N=118)

types	n(%)	
qualitative(including Q-method)	2(1.7)	9(7.6)
experimental	7(5.9)	
non-experimental:		
primary descriptive	24(20.3)	
correlational	63(53.4)	
comparative	13(11.0)	109(92.4)
model construction	5(4.2)	
tool development/testify	3(2.5)	
analysis of studies	1(0.8)	

또한 연구 설계에 따른 연도별 분석 결과, 조사연구의 경우 85년 이전에는 전체 12편 중 4편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나, 85-90년에는 총 15편 중 2편, 91-95년에는 총 26편 중 4편 등으로 그 비율이 감소되었다. 상관성 연구의 경우, 85년 이전에 7편에서 96-2000년에는 33편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상승되었고, 비교연구 또한 90년 이전에 1편에 불과하던 것이 96-2000년에는 8편으로 증가하였다. 실험연구는 90년 이전에 1편에 불과하던 연구가 96-2000년에는 6편으로 실험연구 총 7편 전체 중 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설계별 모든 연구가, 특히 실험연구 및 상관성 연구 등이 1996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분석한 Lee(1996)의 연구에서 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였으며, 스트레스관련 논문들을 연도별 연구설계를 분석한 Lee 등(199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최근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연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1991년 30년 동안 간호관련 학위논문을 분석한 Kim과 Lee(1995)의 연구에서 실험연구가 10.2%, 비실험연구가 89.0%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었던 바, 전체 간호 연구에서 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한다면, 간호영역에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연구의 비율은 낮은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자의 스트레스 연구 또한 스트레스를 감소, 완화시키는 스트레스 중재 등에 대한 실험연구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Lee 등, 1992; Lee, 1996).

4. 연구 대상자

1) 연구 대상자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5편(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산직 및 사무직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 대상이 9편(7.5%), 교사 및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각 8편(6.7%)씩, 사무직 7편(5.8%),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5.0%) 순이었다(표 5). 간호사 및 병원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를 하나의 일반 근로자라는 범주로 간주하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39편(32.5%)이었다. 이는 전체적인 간호연구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스트레스 관련 논문 분석에서 간호사나 간호학생 등 간호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는 Lee 등(1992)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다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Murphy, 1996). 이는 그동안 간호학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우리 자신) 이외의 근로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4> no. of studies by design and year

design year	qualitative	experimental	descriptive	correlational	comparative	model	tool	analysis	total
1981-1985	0	0	4(16.7)	7(11.1)	0	0	1(33.3)	0	12
1986-1990	0	1(14.3)	2(8.3)	10(15.9)	1(7.7)	0	1(33.3)	0	15
1991-1995	2(100.0)	0	4(16.7)	13(20.6)	4(30.8)	3(60.0)	0	0	26
1996-2000	0	6(85.7)	14(58.3)	33(52.4)	8(61.5)	2(40.0)	1(33.3)	1(100.0)	65
total	2(100.0)	7(100.0)	24(100.0)	63(100.0)	13(100.0)	5(100.0)	3(100.0)	1(100.0)	118(100.0)

<Table 5>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0)		
subjects	n(%)*	
nurse	75(62.5)	81(67.5)
hospital worker	6(5.0)	
teacher	8(6.7)	39(32.5)
blue-collar worker	8(6.7)	
white-collar worker	7(5.8)	
women worker	6(5.0)	
worker	9(7.5)	
other(s)**	1(0.8)	

* multiple responses

** fire-fighter

5. 논문 제목에 사용된 스트레스 용어

대상 논문들의 제목에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용한 용어에 대한 분석은 스트레스, 스트레스원 혹은 스트레스요인, 스트레스 수준 등으로 분류하였다(표 6).

'스트레스'나 '직무 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를 사용한 경우가 총 84편(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스트레스'를 사용한 경우가 34편(2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직무스트레스'가 20편(15.9%), '업무스트레스' 19편(15.1%) 순이었다. 이외에 '생활사건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충격충동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 대상 논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스트레스원' 혹은 '스트레스 요인'을 사용한 경우가 총 18편(14.3%)으로 그중 '스트레스 정도' 및 '반응'을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사용한 연구가 각각 3편, 2편이었으며, 나머지 13편은 '스트레스 요인'만을 사용하면서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함께 연구한 경우이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 혹은 '스트레스 정도'를 사용한 연구는 17편(13.5%)이었으며, '스트레스 반응'은 7편(5.6%)이었다.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사용된 연구가 2편(1.6%), '스트레스' 용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다른 개념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가 5편(4.0%)이었다.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 결과는 Lee(1996)의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혼란한 용어 사용이 있었다. 특히 직무(job)와 업무(work) 스트레스에 대한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근로자의 직무 및 직무관련(혹은 비직무)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직업성 스트레스(occupational stress)를 사용하는 연구도 있었다(Kim, 2000). 이는 Lee(1996)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스트레스'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전체의 47.3%로 가장 많이 나온 것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Lee(1996)는 같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스트레스'에는 간호사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스트레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스트레스'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이후의 스트레스, 생활 속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 및 생활 습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일상생활 요인 등을

<Table 6> stress term used in each study

(N=126)

(N=126)		
	term	n(%)*
stress	stress	34(27.0)
	work stress	19(15.1)
	job stress	20(15.9)
	role stress	3(2.4)
	life event stress	6(4.8)
	other(s)**	2(1.6)
stressor	stressor	12(9.5)
	job(work) stressor	6(4.8)
stress level	stress level	11(8.7)
	job stress level	3(2.4)
	role stress level	1(0.8)
stress responses	work stress level	2(1.6)
	stress responses(only)	5(4.0)
	stress responses(with stressor)	2(1.6)

* multiple responses

** occupational stress, post-traumatic stress

포함시키고 있음을 고려하면(Lee, 1995; Kim, 2000) 이 같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국 근로자의 '스트레스'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문제목에서 사용된 용어와 원문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들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한 규명과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정도)이나 사회심리적·생리적 역기능 상태의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근로자의 '스트레스 요인'의 유형만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스트레스', '스트레스원', '스트레스반응' 등에 대한 혼란한 용어 사용은 스트레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일치가 없으며, 그 정의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관련된 요인들의 양상도 다르다는 점(Kim, 1987; Yang, 1991; McCain & Smith, 1994)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논문들 중에는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업무(직무) 스트레스라는 제목 하에 생활사건스트레스만을 측정한 연구도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들이 근로자의 '스트레스'의 어떤 측면을 탐구하는지, 즉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리적 작업환경 및 조직적 요인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인지, 혹은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인지, 또 아니면 근로자의 스트레스 과정 전체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의 개념에 대한 합의와 각 연구자들의 스트레스 탐구 영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6.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분석 연구와 질적 연구를 제외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들만을 분류하였으며, 한편의 논문에서만 사용된 도구들은 기타에 포함시켰다(표 7). 여기서 소진측정도구나 불안, 우울측정도구 등은 각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다른 도구들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면서 관련 개념으로 소진이나 불안 등을 측정하는 경우는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는 각 연구자들이 선행 문헌에 근거하여 개발한 '연구자 개발' 도구였으며(34편, 30.4%), 그 다음은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Kim과 Gu(1984)의 도구로 이를 사용한 연구가 13편(11.6%), 최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측정하는 Holmes와 Rahe(1967)의 사회적응척도 및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한 Lee(1984)의 도

<Table 7> instrument used to measure workers' stress (N=112)

instrument	n(%)*
developed by author	34(30.4)
Kim & Gu(1984)	13(11.6)
Lee & Park(1988), (1988)	6(5.4)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Holmes & Rahe, 1967)	6(5.4)
Lee(1994)	3(2.7)
Self-Rating Anxiety Scale(Zung, 1974)	5(4.5)
Role Stress Scale(Rizzo etc., 1970)	4(3.6)
Bai(1989)	4(3.6)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Chang, 1994)	3(2.7)
SOS(symptoms of stress)-modified by Lee(1992)	2(1.8)
CMI(cornell medical index)(Broadman, 1945)	2(1.8)
Visual analogue scale(Cline, 1992)	2(1.8)
Karasek(1990)	2(1.8)
SCL-90(symptom check list)(Derogatis, 1974)	2(1.8)
Kim(1989)	2(1.8)
other(s)**	22(19.6)

* multiple responses

** Burnout scale(Pines, Aronson, Kafry, 1981),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74), Job stress scales, which developed by other authors, were modified and reused(Bai, 1988; Kim, 1990; Choi, Kim, & Kim, 1999) etc.

구가 9편(8.1%), 생산직·사무직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Lee와 Park(1988, 1989)의 도구가 6편(5.4%)이었다.

연구자가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한 논문을 사용한 논문을 각 한편의 논문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타로 분류된 논문과 합하면, 전체 논문의 과반수 정도(59편, 50.0%)가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다양성 등으로 대상 근로자에 따라 스트레스요인 및 스트레스 지각 정도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의 대부분이 개발된 도구들에 대한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인분석 과정이나 Cronbach's α 값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그 문항 구성에 있어 Kim과 Gu(1984)나 Bai(1989) 등의 도구와 유사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개발, 사용한 도구들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정 연구를 위해 각각의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구의 표준화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Lee, 1996).

본 연구 결과,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있어 '불안'을 측정한 논문이 5편, '우울'을 측정하거나 '소진'을 측정한 논문이 각 1편, Holmes와 Rahe(1967)의 도구나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Lee(1984)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한 논문이 9편이었으며, 조사목록의 성격을 갖는 SCL-90(Symptom Check List-90), CMI(Cornell Medical Index), SOS(symptom of stress) 등을 사용한 논문이 각 2편 등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국내에서 인정된 도구이기도 한데,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신체적인 증상 등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구분을 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성격이 강하다(Kim, 1999). 즉 '불안'의 경우, 스트레스와 유사하고 중복된 개념(Lazarus & Folkman, 1984)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불안 측정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Maloney, 1982). 그러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불쾌한 자극인 반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불쾌한 자극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극까지도 포함된다(Lee 등, 1992; Lee, 1996; Kim,

2000). 그리고 '소진'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 개념, 부정적인 업무 태도와 무관심, 사회적지지 체계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 상태의 경험을 말한다(Ryan, 1981).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는 이러한 도구들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을 할 수가 없다(Lee, 1996; Kim, 1999).

특히 CMI의 경우, 개발자인 코넬대학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와 개정판을 제작할 의사가 당분간 없음을 들어 문항내용을 1990년 7월-1991년 6월 동안 모두 폐기하고, 2001년 7월 현재 그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Kim 등, 2002), 그 이후에도 이를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있다는 것은 동시대적인 직무 스트레스관련 연구 동향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경향 등에 대한 연구자의 탐구 노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생활사건 척도만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혹은 직무(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된 환경 이외에 여러 환경에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이에 근거한 적합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근로자의 스트레스 연구의 관련개념 별 분포

대상 논문들 중 논문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제외하고, 각 연구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탐색한 주요 개념들을 전체 스트레스 과정에 따라 중재(매개)변수와 결과변수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한편의 논문에서만 탐구된 개념들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와 같다.

다양한 개념들과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들이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된 개념들은 기타를 포함하여 총 29개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199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개념이 기타를 포함하여 15개로 나타난 것이나,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논문을 분석한 Lee(1996)의 연구에서, 관련 개념들이 10개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였다. 이는 상관성 연구를 통하여 각 개념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후,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 효과

〈Table 8〉 stress-related concepts

(N=113)

	concept	n(%)*	
intermediate variables	coping strategies	19(16.3)	
	social support	9(8.0)	
	personality(TABP, LOC)	9(8.0)	41(36.3)
	hardness	2(1.8)	
	humor	2(1.8)	
result variables	job satisfaction	15(13.3)	
	role performance	3(2.7)	
	organizational commitment	3(2.7)	
	education satisfaction	3(2.7)	
	intention of turnover	2(1.8)	41(36.3)
	burnout	10(8.8)	
	fatigue	2(1.8)	
	health promotion behavior (health care behavior)	3(2.7)	
	health status	7(6.2)	
	health problem	1(0.9)	
	physio-mental health	2(1.8)	16(14.2)
	psycho-physical responses	2(1.8)	
	mental health	4(3.5)	
	other(s)	15(13.3)	15(13.3)

* mutiple responses

** assertiveness, morale, quality of work life, depression, anxiety,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autonomy, job commitmen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lict coping strategies, male self-awareness

등을 규명하는 연구의 체계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Lee 등, 1992).

이들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개념은 대처(적응)로 19편(16.3%)의 연구에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은 직무만족 15편(13.3%), 소진 10편(8.8%), 사회적지지 및 성격특성 각 각 9편(8.0%) 순이었다. 결과변수의 경우 사회, 심리, 생리적 건강상태 등 '건강상태'를 다룬 논문이 총 16편(14.2%)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에서 연구된 개념들 중 대처 및 적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건강상태, 성격, 사회적지지 순으로 보고한 Lee 등(1992)의 연구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개념은 직무만족과 소진, 건강상태 등이었는데, 그중 근로자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만족'과 '소진'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근로자 스트레스에 대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물리적 작업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반응이나, 스트레스와 질병발생과의 관계 등에 집중한 반면,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갖고 있는 조직적 측면은 간과한 채 근로자

의 개인 수준의 스트레스 관련 반응, 질병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과 유사하다(Oh & min, 1993; Kim, 2000). 그러나 근로자의 스트레스 현상은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다요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작업하는 조직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조직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1981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서 간호학자에 의해서 수행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118편을 대상으로 논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은 1985년 이전에 12편이었으나, 1985년 이후 증가하여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65편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과반수 이상(55.1%)을 차지하는 등 급격히 증가

되었다.

2. 분석 대상 논문들 중 학위논문이 82편(69.5%), 비학위논문으로 학회지 등에 게재된 경우가 36편(30.5%)이었다.
3. 논문의 92.4%(109편)가 비실험연구이었다.
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등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 대상 논문은 32.5%이었다.
5. 논문 제목에 사용된 스트레스 용어들 중 직무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를 사용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반응 등이 각각 14.3%, 13.5%,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에서 사용된 근로자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들 중 각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도구로는 Kim과 Gu(1984)의 간호사 업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 스트레스와의 관계들에 분석된 개념은 총 29개의 개념이었으며, 이중 가장 많이 분석된 개념은 대처 및 적응으로 16.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직무만족, 소진, 사회적지지, 성격특성 순이었다. 직무만족 및 소진 등 근로자 스트레스의 조직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과의 관계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간호학자들이 20여년 동안 수행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995년 이후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비실험연구이었으며,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 연구 등 실험연구는 적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간호사에 편중되어 다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부족하였으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로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들이 가장 많았고, 생활사건스 트레스나 소진, 우울 등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관련성에 대해 분석된 개념들은 대처 및 적응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만족이나 이직, 소진 등 근로자들이 조직구성원으로서 겪게 되는 조직적 스트레스 측면은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합의 및 연구자들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상관성 연구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위한 중재 및 실험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자 스트레스의 조직적 특성을 포괄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Reference

- Bai, J. Y. (1989).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tress measurement tool for psychiatrists nurses. *The Korean Nurse*, 28(1), 77-87.
- Cahill, J. (1995, September). *Reducing Occupational Stress: an introductory guide for managers, supervisors and union members*. Presented at the Work Stress and Health '95 Conference. Washington D. C.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 Research*, 11, 213-218.
- Kim, H. G., & Lee, Y. S. (1995). A statistical analysis on nursing related thesis in Korea. *The Korean Nurse*, 34(5), 68-81.
- Kim, J. H. (1987).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a focus on freshmen's stress experi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1999).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PWI). *J Korean Acad Nurs*, 29(2), 304-313.
- Kim, J. H. (2000). *Model construction of occupational stress in manufacturing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01, December). *Job stress management and nurses' role: a educational-industrial collaboration*. In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an Occupational Health Nursing, Chonnan, Korea.

- Kim, J. H. et al. (2002). Measuring Stress, Unpublished.
- Kim, M. J., & Gu, M. O. (1984).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 Korean Acad Nurs*, 14(2), 28-37.
- Kim, M. S. (1990). *A study of model building on job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E. O., Lee, E. J., Lee, E. H., Chun, K. Z., Kim, J. H., Park, C. S., Lee, B. S., & Jung, M. S. (1992-a).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J Korean Acad Nurs*, 22(3), 271-283.
- Lee, E. O., Song, H. H., Lee, B. S., Kim, J. H., Lee, E. H., Lee, E. J., Park, C. S., Chun, K. Z., & Jung, M. S. (1992-b).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s on anxiety and/ or stress: a meta-analysis. *J Korean Acad Nurs*, 22(4), 526-551.
- Lee, J. M. (1989). The cause, results, and management of job stress. Seoul: Song-won.
- Lee, J. H. (1995). *Study on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work life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the job stress of working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M., & Park, H. G. (1988-a). A study on developing of job stress scale(I).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4(1), 241-262.
- Lee, J. M., & Park, H. G. (1988-b). A study on developing of job stress scale(II). *Theses collection of Chonnam University*, 33, 43-62.
- Lee, M. H. (1996). Analysis of studies on work stress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80-200.
- Lee, P. S. (1894). *A methodological research on the measurement of stress related to life ev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W., Ha, Y. S., & Park, E. S. (1985). A study on the rank of stressful event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J Korean Acad Nurs*, 15(1), 17-29.
- Lee, W. C. (1997). *Occupational stress of hospit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aloney, J. P. (1982). Job stress and its consequences on a group of intensive care and non-intensive care nurses. *ANS*, 4(2), 31-42.
- McCain, N. L., & Smith, J. C. (1994). Stress and Coping in the Context of Psycho-neuroimmunology: A Holistic Framework for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8(4), 221-227.
- Murphy, L. R. (1996). Stress Management in Work Settings: A Critical Review of the Health Effects. *American J Health Promotion*, 11(2), 112-135.
- Oh, H. K., & Min, B. I. (1993). Job holder's stress. *The Korean J Stress Research*, 1(1), 113-118.
- Paik, K. C., & Hong, K. E. (1987).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s, locus of control and state-trait anxiety. 26(1), 75-111.
- Ryan, M. A. (1981). Professional Survival. *Supervisor Nurse* Feb., 16-17.
- Yang, B. H. (1991). The concept of stress. *Mental Health Research* 10, 1-9.
- Murphy, L. R., & Schoenborn, T. F. (1987). Stress management in work settings. *NIOSH*.
- <http://www.nanet.go.kr>
- <http://www.richis.org>
- <http://www.riss4u.net>
- <http://www.koreanurse.or.kr>

- Abstract -

An Analysis of Studies of Workers'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81 to 2000

Kim, Jeong Hee · Yoon, Soon Nyu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patterns and trends of nursing studies of workers' stress conducted in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ctivities. Research studies of workers' stress were collected from the abstract and the title lists of studies using internet search. The total number of studies used for this study was 118.

The analysis of these studies showed that the studies of workers' stres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1995, but most of them were non-experimental design studies. They tended to be conducted more on nurses, and used confusedly in stress terms. Instruments developed by the authors were the most popular. Moreover, the organizational variables of the stress-related concept were barely used except nurses' stress. Therefore, it was needed to identify and clarify the terms of stress among the authors, and to develop the workers' stress management programs and examine their effects. Especially studies that include the organizational variables of workers' stress need to be done in the future.

Key words : Worker, Stress

* Dep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